

■ 여수 갑

4선의 김성근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선거구는 무주공산이 됐다. 이 선거구는 지역민들의 표심을 어떻게 공략해 가느냐에 따라 선거 판세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는 새누리당 신정일(50), 더불어민주당 송대수(60)·이용주(47)·김정유(53), 무소속 김경호(49)·김영규(59) 후보 등 6명이다.

치과의사인 신 후보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역민들을 상대로 표밭을 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 수석부위원장인 송 후보와 변호사 출신인 이 후보, 전 노무현대통령후보 특별보좌관 출신인 이 후보 등 3명은 조직력을 갖추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제주대 교수인 김경호 후보와 전 여수

김성근 의원 불출마로 무주공산... 6명 각축



시의회 의장인 김영규 후보도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여론의 향배에 귀를 기울이면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여수 갑 선거구는 다선인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역민심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

히 더불어민주당의 내홍과 호남발 신당 창당에 따른 신당 돌풍설이 겹치면서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도 예상된다. 또 이 후보 대다수는 정치신인으로, 이들이 조직을 잘 정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동하느냐에 따라 선거의 승패도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 여수 을

여수 을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주승용(63) 의원의 4선 진입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주 의원은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최다 득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지만 최근 당이 내홍을 겪으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수석 최고위원을 지내면서 호남의 창구 역할을 했던 그는 당내 주류 세력과의 잇단 정면충돌로 정치적 중립감도 커졌다.

이번 총선에서 여수 을의 최대 변수는 주 의원의 탈당 여부다. 정치권에서는 주 의원이 1월 중에 탈당이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의원이 신당에 참여한다면 선거 구도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지역 기반이 탄탄한 주 의원의 탈

주승용 4선 진입 탈당 여부 최대 관심



당과 신당 참여는 여수는 물론 순천, 광양 등 동부권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무소속인 박종수(58) 중원대 교수와 이광진(50)씨, 황필환(34)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역민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인 이들은 주 의원의 행보(탈당 등)와 신당 돌풍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당

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에선 심정우(56) 중앙당 부대변인의 출마가 점쳐진다. 심 부대변인은 여수세계박람회 예산 및 주요 SOC사업을 정부에 건의하고 지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순천·곡성

지난해 재보선에서 야당 텃밭에 새누리당 깃발을 꽂은 이정현(57) 의원의 재선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이 의원은 재보선 당시 “호남에 예산폭탄을 투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는 민심이 극단적 양분 상태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독주도 이 의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야당 텃밭인 호남에서 신당 창당이 있다면 등 민심을 거스르는 야당의 행태에 대한 민심이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호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재보선 패배 후 비례대표인 김광진(34) 의원을 당원위원



장으로 내세우며 탈환을 노리고 있다. 지난 재보선에서 이정현 의원에 석패한 서갑원(52) 전 의원도 바닥을 다지며 재기에 나서고 있다. 서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정부비서관을 역임했으며 17대·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輿 이정현이나 野 탈환이나

또 더불어민주당 노관규(55) 전 순천시장과 손훈모(46)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의 장, 고재경(47)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의 장, 김선일(50) 순천대 교수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역 민심을 살피는데 주력하고 있다. 무소속인 박상욱(51) 전남교육 미래위원회 지역민심을 살피고 있다.

■ 나주·화순

이 선거구의 최대 변수는 선거구 획정이다. 선거구 문제와 관련,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일각에선 나주·화순을 해체한 뒤 인근 지역인 무안·신안 등과 합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선거구는 선거구 획정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각 후보자들의 유·불리가 갈릴 전망이다.

다만 나주·화순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난해 재보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51) 의원의 재선 여부가 관심사다. 만만치 않은 나주 화순 민심이 신 의원의 짧은 의정 생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목된다. 신 의원의 재선 도전에 맞설 후보로 박선원(52) 전 참여정부 대통령실 통일외교

선거구 획정 따라 후보들 유불리 갈려



안보전략비서관과 최인기(71) 전 의원이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농림수산부 장관·행정자치부 장관·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새누리당에선 김중우(57) 전 나주동강농협 조합장의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다.

무소속 후보인 노정재(64) 전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한승태(55) 의사사회복지 효성요양병원 대표도 일찌감치 예비후보를 등록한 뒤 지역민심을 살피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이 윤곽을 드러낸 이 지역구는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한 나주 민심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 광양·구례

더불어민주당 우윤근(58) 의원이 4선 고지를 넘을지가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18대·19대 의원을 지냈다. 당내 입지가 비교적 탄탄하지만 전남에서 대표적 친노 성향 의원이란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적인 민심이 변수로 꼽히고 있다. 광양은 무소속 시장이 연속해서 당선되는 등 민심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총선 물망에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는 비종있는 인사들은 3선을 향해 뛰는 우 의원의 아성을 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준노(56)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노동특별보좌관과 무소속 서동용(51) 변호사, 김광영(78) 전 공군사관학교 교수, 김현욱(70) 전 김대중 대통령후보 광양시 선거대책위원장은 최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상태다. 새누리당에선 이

‘친노’ 우윤근 4선 고지에 6명 도전장

승안(63) 광양·구례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진보·노동계에선 유현주(44) 전 전남도위원이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내년 총선에서 광양과 통합됐던 구례가 다시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

■ 담양·함평·영광·장성

이 지역의 변수는 선거구 획정이다. 함평의 분리와 구례 및 곡성의 합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가 쪼개지는 혼란을 빚었다는 점에서 출마 예정자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현재까지 뚜렷한 행보를 보이는 후보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조만간 선거구 획정이 최종 결정되고 신당 창당 작업이 마무리되면 각 후보자들이 선택을 따져보고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지난해 보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계호(56) 의원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의원은 보선에서 당선된 뒤, 특유의 친화력으로 지역구를 성실하게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

신당·선거구 따라 후보자 대결구도 달라질 듯



에 당내에서도 원내부대표를 맡는 등 당내 입지도 비교적 탄탄하다. 문제는 이 의원의 탈당 여부, 가능성은 반반으로 점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분당 국면에 접어들면 이 의원이 결단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맞서 정기호(61) 전 영광군수의 도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강형욱 서북 전남발전연구원장도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강 원장은 영광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재정경제부 소

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하고 한국투자공사(KIC) 감사를 지냈다. 강 원장은 현재 영광에 서북 전남발전연구원 사무실을 차린 뒤 지역민과의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이종효(55) 효창산업 대표이사의 출마가 점쳐진다.

■ 고흥·보성

고흥·보성은 여수 갑과 고흥·보성, 장흥·강진·영암, 무안·신안 등과 같이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다. 현재 하한 인구 수는 13만8984명. 이 선거구는 내년 총선에서 단독 선거구 유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 따라서 이 선거구의 최대 변수는 선거구 재획정이다. 인접 시·군과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선거구가 재획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출마 예정자들의 유·불리가 갈릴 전망이다. 지난 29일 현재 이 선거구 예비후보등록자는 새누리당 장귀석(60) 당원위원장, 장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역민과 소통하면서 표밭을 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50) 의원의 내



년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김철근(47) 동국대 겸임교수, 김범태(61)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남 의원은 초선이지만 의정 활동 이외엔 지역구를 돌며 주민들과 소통을 넓히는 등 지역구 관리를 비교적 탄탄하게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86(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그룹의 초선 의원으로서 정치적 존재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 재획정이 최대 변수

김 의원은 분당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전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당에서 강력한 후보를 내세운다면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적인 민심과 맞물려 선거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장흥·강진·영암

장흥·강진·영암도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로,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유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 선거구는 인근 선거구와 통합해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는데, 지역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정될지가 최대 변수다. 또 선거구가 통합될 경우 동료 전현직 의원과의 생사를 건 한판 대결도 불가피한 점도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현재 해당 지역구에선 후보군들의 소문만 무성할 뿐 아직은 뚜렷한 총선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황주홍(63) 의원의 지역구인 장흥·강진·영암에선 황 의원의 출마가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박준영(69) 전 전남도지사와 김영근(56) 중앙당 원내대표 비

황주홍·박준영·김영근 3파전 될 듯



사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3선 강진 군수를 지낸 황 의원은 강진 군수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등 조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준영 전 도지사는 최근 신당을 창당하면서 광복행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지사가 해당 지역구로 출마할지 아니면 다른 지역구로 나설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현직 단체장들의 출마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신당 창당에 따른 여파가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혼전마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선거구 역시 지역구의 통합여

부 선거에 앞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으며, 통합 여부 결정 전까지 선거판은 광활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구가 통합될 경우 정치적 있는 기존 의원들끼리 대결이 불가피한 복잡한 양상의 전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 해남·완도·진도

완도 출신의 김영록(60) 의원의 3선에 해남 출신 입지자들의 도전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후보군으로는 현역인 김 의원의 출마가 확실시된 가운데 무소속 후보인 윤재갑(61) 전 해군군수사령관과 윤영일(58) 전 감사원 교육원장, 김영근(49) (사)한중문화협회 이사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지역민심을 차분히 다져가고 있다. 완도 출신인 김종식(65) 전 완도군수와 19대 총선에서 출마표를 던졌던 민병록(62) 호산건설 대표이사도 후보자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수산 전문가’로 알



려진 이영호 전 국회의원(17대)도 출마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선에서 이 선거구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선거구 재조정이다. 이 지역구 후보군 대다수가 해남·완도 출신으로, 내년 총선에서도 해남·완도 출

완도 출신 김영록에 해남출신 대거 도전

신 후보 간 대결이 점쳐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지역이 통합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도 180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완도와 진도에 비해 인구가 많은 해남 출신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도 최대 관심사다. 김 의원의 탈당 여부도 변수다.

■ 무안·신안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인 무안·신안은 내년 4·13 총선에서 선거구 재조정 문제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에서 이 선거구는 통합이 사실상 불가피해진 상황. 따라서 어느 지역이 통합되느냐에 따라 각 출마후보자들 간 유불리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윤석(55) 의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영순(56) 전 무안군수와 백재욱(51)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역 민심을 차분히 다져가고 있다. 특히 이 의원과 서 전 군수가 리턴매치로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한 차례 승부를 벌였

선거구 통합 불가피... 이윤석-서삼석 리턴매치



으며 그동안 무안 기업도시 등을 놓고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왔다. 이 의원은 중앙당 조직본부장 직책 등을 맡으며 당내 주류에 편승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역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 변수로 꼽히고 있다. 반면 무안군수 등을 역임한 서 전 군수는 탄탄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행정·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바다 민심을 살피고 있다. 특히, 서 전 군수의 신당 참여 여부는 선거 구도에 최대 변수로 꼽히

고 있다. 백재욱 정책위원장의 참신성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다그흐스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비례대표 주영순(69)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